

HKJ 2009

발행처 : HKJ 한양대학교 예술학부
한국무용파트
편집인 : 안지형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산 17번지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331호
전화 : 02-2220-1334
팩스 : 02-2297-7746
e-mail : dambicom@hanmail.net
인쇄소 : 광세당인쇄

내일의 춤꾼 내일의 예술가가 있는 HKJ(Hanyang-Korean dance Journal)

2009년 1월 22일 / 제8호 HKJ

바람글...〈하나〉

2009..그 바람위에 첫발을 내딛다.

한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실망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희망은 포기해서는 안된다.
바람처럼 흘러가는 시간앞에 한해의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두고
저 멀리 불어올 따뜻한 바람을 기다리며 우리들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본다.

물론 누구의 삶이 더 낫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자음과 모음이 서로의 몸을 섞어 언어가 탄생하듯
세상은 서로 다른 삶이 모여 만들어가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걸어야 함에 있는 것이다.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걸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
각자 자신의 신념과 자신만의 방법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과정안에 늘 함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하나의 소명을 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거니까.

우리는 지금도 낯선 세상에 서있다.
매일을 살아도 매일이 낯설고 새로운 세상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매일 같은시간을 살아도 다른 삶이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사진 : 인디마라

그렇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이고 여행이다.
그저 흐르는 바람결에 몸을 맡기고 크게 한번 심호흡하며
어느순간이든 미련을 두지않고 사랑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어느덧 새해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다.
늘 새로운 바람은 반가운 두려움이다.
2009년..
각자의 바람을 가슴에 품고 모두 더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편집인 안지형-



2 우리춤연구소 어제와 오늘

3 한양&쿰 춤! 춤! 춤!

4 · 5 KUM 15주년& 묵간 10주년

6 논단 2009

7 냉정과 열정사이

8 HKJ 2009 종합

2008 우리춤연구소 제2회 학술심포지엄

“예술적 담론으로 본 한·일 지역문화 재조명- 충청도 편”



학술심포지엄 각분야 초청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춤연구소 제2회 학술심포지엄 풍경



우리춤연구소 소장 김운미교수님의 개회사



“제2회 푸른꿈을 찾아서 발표회 후 함께”



“두드리”

2008 ‘우리춤 체험 프로그램’ 중 발표회(‘푸른꿈을 찾아서’)가 12월 13일 한양예술극장에서 펼쳐졌다.

2005년부터 시작한 우리춤 연구소의 ‘우리춤 체험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자녀, 외국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시켜왔다.

2007년부터는 성동 청소년 수련관과 한양대 사회봉사단과 연계하여 좀더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2008 우리춤 체험 프로그램은 마장동 지역 초등학생과 광희중학교의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

며 12월 13일(토) 3시 한양 예술극장에서 화려하게 제 2회 〈푸른꿈을 찾아서!〉 발표회를 가졌다. 1부에는 광희중학교 학생들의 ‘모듬복’과 ‘부채춤’이 펼쳐졌고 이어서 마장동사무소 초등부 어린이들이 ‘소고와 장구의 합주’를 보여주었다.

뒤이어 2부에서는 한양대 무용과 학생들이 ‘12발상모’와 창작춤, ‘에헤라 만수’ 마지막으로 ‘평양검무’ 등을 선보였다. 올해 2번째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매년 자라나는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자극하여 우리 예술에 대해 이해를 돋구자 마련된 행사로 매년 큰 관

그리고 백제미술”을 주제로 10월 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양대학교 박물관 내 세미나실에서 제 2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는 한양대학교 산학 협력

단과 동양종합건설(주)가 후원하고 있다. 우리춤 연구소의 학술심포지엄은 우리 춤에 관한 학문적 교류와 지역문화 이해증진을 위해 여러 국내 교수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춤을 통해 국제 교류에 대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무용학문의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앞으로 학술심포지엄이 다양한 학술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물론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어 진정한 국제학술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김운미 소장이 전했다. 현재 우리춤 연구소의 학술 심포지엄은 회를 거듭 할수록 지역문화의 춤에 관한 심도 있는 학문적 연구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춤의 정체성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경주(06)기자

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류소리(08)기자



“부채춤”



“소고춤과 장구춤”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우리춤 연구』

‘우리춤연구’ 논문집 정기 발간(6집~7집)



우리춤연구소가 발간하는 무용전문학술지 『우리춤연구』가 2008년 12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우리춤연구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논문집 발간 사업시행 이래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낸 희거이며 우리춤 연구소는 등재지 선정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춤연구』는 2005년 12월을 시작으로 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역사, 교육, 기호, 음악 및 미술, 공학 등을 비롯한 통합적 학문과의 연계체제로 공동 연구 및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지의 질적 향상과 투고자의 전문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접수된 논문 중에서 최우수작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홍보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통합연구의 성과를 다음번에 발간되는 연구지에 실어 연구지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는 질적 연구를 극대화 하고자 한다.

2008 우리춤 체험 프로그램 (봉사활동)

1. 광희 중학교

- 일시 : 3월 ~ 12월
- 장소 : 성동구 청소년 수련관
- 대상 : 광희 중학교 발달장애 학생
- 강습내용 : 두드리, 우리춤 ‘old & new’
- 강사 : 구제민(외부강사), 문보영, 지제욱

2. 빙과 후 레인보우 스쿨 프로그램

- 일시 : 3월 ~ 7월
- 장소 : 성동구 청소년 수련관
- 대상 : 성동 청소년 수련관 학생
- 강습내용 : 소고춤
- 강사 : 문보영

3. 2008 5월 ‘초등문화학교’

- 주제 : 주제 : 주제문화학교
- 일시 : 5월 4일 ~ 12일
- 장소 : 성동구 청소년 수련관 강의실
- 대상 : 초등 청소년 4~6학년 학생
- 강습내용 : 소고춤, 부채춤, 탈춤, 모듬복
- 강사 : 지제욱, 김신아, 최자인, 문보영, 오대원, 김순탁(외부강사)
- 발표회 일시 및 장소 : 5월 12일 PM 2:00 무지개극장

4. 충주 성모 맹아 학교 캠프 전통 강습

- 일시 : 6월 12일 PM 1:00 ~ 3:30
- 장소 : 양주 한마음 수련관
- 대상 : 충주 성모맹아학교 학생
- 강습내용 : 시끌놀이
- 강사 : 지제욱, 김순탁(외부강사)

5. 한양대 사회봉사단 ‘우리가 꿈꾸는 학교 - 창의 체험’ 강습

- 일시 : 6월 14일 PM 2:00 ~ 8:00
- 장소 : 태안군 창기중학교
- 대상 : 창기중학교 1, 2학년
- 강습내용 : 소고춤, 강강수월래
- 강사 : 지제욱, 김신아, 오대원, 한나경, 안선영, 변재진, 이수민, 하혜림, 하유관

6. 마장동 봉가 후 공부방

- 일시 : 6월 ~ 9월
- 장소 : 마장동 주민자치센터
- 대상 : 마장동 초등학생
- 강습내용 : 소고와 장고 합주
- 강사 : 문보영

7. 2008 우리춤 체험 프로그램 발표회 ‘제2회 푸른 꿈을 찾아서’

- 일시 : 12월 13일 PM 3:00
- 장소 : 한양예술극장
- 대상 : 2008년 우리춤 체험프로그램 참가 학생들
- 강습내용 : 모듬복, 부채춤, 소고와 장고, 12발 상모, 창작무용, 평양검무
- 진행 : 지제욱, 김신아, 오대원, 강요찬, 이록, 정지욱, 조의연, 윤영식

춤으로 꿈꾸며 미래를 열어간다!

창작발표회

5월 8일, 9일(2일간) 한양대 무용학과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창작 발표회가 있었다.

학생들이 그동안의 가지고 있던 창의력과 실력으로 개성 있는 무대를 보여주는 이 공연은 한양예술극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큰 기대와 관심 속에서 펼쳐졌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들의 작품이 무대에 올려지는 것에 그 무엇보다 기뻐하였고, 관객에서는 그 모습과 열정의 무대에 큰 박수를 쏟아졌다.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정기공연

2008년 11월 26일(수) 양재 교육문화회관은 한양대학교 무용학과의 정기공연을 보려온 사람들로 가득찼다. 한해 동안 갚고 닦은 실력을 발산해 내는 큰 의미가 있는 공연이다.

공연의 막이 오르고 1학년 학우들의 '평양검무'가 시작되었다. 다른 검무들보다 활달하고 섬세한 춤사위로 시작을 멋지게 열었으며, 끝이어 2학년 학우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 시작되었고, 강하면서도 아름다운 춤사위로 공연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뒤이은 3학년의 불교경전, 금강경에 대한 이미지를 무용화한 작품 '금강반야바라밀경'이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학우들은 그동안의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고 관객들은 그 열정의 감동을 박수로 화답하는 뜻깊은 공연이었다.



2008 Kum dance company perform



〈취〉(이영립 안무, 떠오르는 안무 가전) 춤전용 M극장에서 3월 5일(수)~6일(목)에 있었다.

〈I confess...〉(김신아의 춤, 개인공연) 공연이 춤전용 M극장에서 3월 17일(월)~18일(화)에 있었다.

〈가짓길〉(지제욱 안무, 춤과 의식 전) 춤전용 M극장에서 4월 5일(토)~6일(일)에 있었다.

〈목어(木魚) - 독백〉(최자인 안무, 대한무용학회 '춤으로 푸는 고전') 공연이 한전아트센터에서 4월 12일(토)~13일(일)에 있었다.

〈서울국제啄鳴舞 축제〉(서연수 출연) 춤전용 M극장에서 5월 23일(금)에 있었다.



지제욱 "동동"



최자인 "목어-독백"

〈동동〉(지제욱 안무, M극장 개관 2주년 기념공연) 춤전용 M극장에서 5월 25일(일)~26일(월)에 있었다.

2008년 Kum Dance Company는 각 단원들의 개성적 역량을 담은 다양한 공연들을 펼쳤다.

김운미 예술감독의 지도 아래 15년 동안 꾸준히 훈련되어오고 성장해온 그들은 각기 다른 색깔과 파워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공연에서 개성있는 무대를 보여주고 있다.

대전공연 리뷰 <한 여름밤의 열기 속으로...>



대전 시립무용단의 초청으로 지난 8월 9일 한양대 김운미 무용단이 '한 여름 밤 댄스 페스티벌'에 참가하였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한 여름 밤 댄스 페스티벌'은 전국 무용단 중 5팀을 초청하였고 8월 2일부터 30일까지 대전 시립미술관 야외무대 앞에서 토요일

마다 전통무용과 창작무용, 현대무용을 선보였다.

8월 9일 김운미무용단 공연은 1부와 2부에서는 한국 창작무용 '잔향(殘響)'과 '목어(木魚)-독백'이 펼쳐졌고 3부에서는 우리 가락이 담긴 농악과 서정적인 민속춤을 엮어 우리 민족의 평화와 풍요로움을 상징한 '단오풍정'을 공연하였다.

무더위 가운데서 시원한 무대와 화려한 조명, 뜨거운 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음악과 춤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춤의 매력에 압도되었고, 무용수들도 관객의 호응에 힘입어 더욱 빛을 발하였다. 축제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역시 무더위를 날리고 재미와 즐거움을 재충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안선영(07)기자-

(Congratulation)



지제욱(무용단원)이 공연과 리뷰 주체 PAF 춤 베스트 레파토리상을 수상하였다.



오대원(무용단원)이 제5회 서울국제 콩쿠르 민족무용 시니어 남자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김기승(한국무용 4학년) 학생이 제38회 동아 무용콩을 한국무용 남자부문 창작 부분 동상을 수상하였다.

리뷰

상생 - 2008 누구라도 그려하듯이

11월 13일 국립국악원에서 김운미 무용단 15주년 기념공연 「상생(相生)-2008 누구라도 그려하듯이」가 4시, 8시 두 차례 공연되었다.

이 날 공연은 김운미 교수님의 살풀이춤과 재학생과 무용단원들의 군무로 구성되어 이루어졌다.

「상생(相生)-2008 누구라도 그려하듯이」는 여성을 주제로 한 그 동안의 연작 속에서 아름다운 사람, 美人에 대한 이야기이다. 남성이다 여성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서 느끼는 대립과 분열, 정신적 공허함은 미인(美人)이라는 테마를 통해 그 치유의 한 방법을 모색하고 남성과 여성은 서로 분리의 관계가 아닌 구분과 어울림, 상생의 관계로 풀어놓은 작품이다.

〈김운미KUM Dance Company〉는 지난 15년 동안 김운미 예술감독의 지도 아래 「여자」와 「여성」이라는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누구라도 그려하듯이」, 「흰 옷」, 「조선의 눈보라」, 「온달」, 「푸리 I, II, III」, 「함 I, II, III」, 「그한여름」, 「축제」 등의 작품들을 공연해 왔다. 이를 작품 안에는 역사 속에서의 여성과 현대사회에서의 여성들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평론

11월 13일 국립국악원에서 두 차례 열린 김운미 무용단 15주년 기념공연은 1993년 공연된 「누구라도 그려하듯이」의 후속 신작 「상생(相生)-2008 누구라도 그려하듯이」로 선보였다.

김운미는 지난 15년 동안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정의되지 못했던 여성의 주소를 춤으로 파고들었다. 가부장적 사회의 여성이 겪는 고통과 지난 역사의 아픔 속에서 여성의 강요당한 회생 등... 주제는 「시대와 여성」이 주를 이루었다. 이번에는 억압, 차별 등 여성의 글로보다 여성의 정체성 찾지와 미래지향적 희망을 내세웠다.

공연 시작인 김운미의 「살풀이춤」은 거의 20분에 달했다. 춤의 프로그램지만 전개될 춤의 압축인 셈이다.

김운미(KUM)무용단은 역사의 한 순간을 여성의 시각에서 미시사적으로 해석한다. 군무의 역동적이고 저돌적인 춤사위가 각 춤 장면마다 담겨졌다.

이번에도 군무의 시원하고 에너지 가득한 춤사위가

2008년 신작 「相生-2008 누구라도 그려하듯이」는 〈김운미KUM Dance Company〉에서 여성을 주제로 한 연작을 몸나버스 형식으로 규합하고 합축시킨 연작(連作)의 완결판이다.

김운미 예술감독은 지난 15년 동안 역사적 문제와 여성이라는 주제를 다루어왔다. 그 이유에 대해 "우선 내가 여성인가 때문이고, 나아가 역사 속의 여성이다. 현대의 여성이다. 「여성의 홀로서기」에 대해 한국의 사회사적 흐름과 더불어 깊은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작품으로 형상화시켜 관객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교훈적이고 사실적인 이러한 주제들을 우리 춤사위로 풀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김운미 예술감독은 여성의 시간에서 우리의 역사를 춤으로 풀어내는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즉흥성과 개방성이 맞물린 동작을 조화롭게 창출하는 안무가, 학자답게 작품에 있어 분석력과 상황파악력이 학자답게 정확한 예술가로도 평가받고 있다.

-박진영(07)기자-

군무에서 발산된다. 락사운드의 전자음악을 타며 도약하고 다시 무대바닥에 떨어지는 여성 4인무는 김운미 무용단이 추구해온 현대미와 고전미의 양상을�다.

여성성을 나타낸 면사포 차림의 신부들이 객석에 부케를 던지는 장면은 작품의 주제를 반영한 연출이다. 음악도 클래식, 전자시운드, 국악연주, 한국가수의 노래 등 다양하게 춤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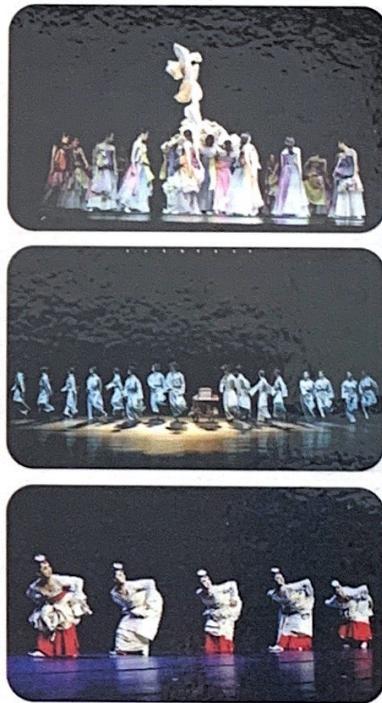
전자기타 선율에 맞춰 무용수들이 무당처럼 신들린 듯 뛰는 장면은 여성성 확보의 바람이 고조를 이룬다는 의미도 준다. 장면에 따라 길이입는 의상도 주제를 부각시킨다. 분홍, 노랑, 하늘색 등 색색으로 걸쳐 입은 치마는 단색 위주의 개성 없는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권리 찾기에 분주한 현대 여성들의 심로를 읽고 있다.

출처: 춤지 -유인화 춤 평론가-

Kum Dance Company

1993년 김운미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생겨난 한양대 무용과 출신으로 구성된 단체로 우리 전통의 기본 춤사위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그동안 KUM이 걸어왔던 15년 동안의 작품들은 현시대의 여성을 대변하는 「페미니즘적 시각」과 몸나버스 형식의 「뉴댄스」라는 독특한 형식을 창출해 냈다.

KUM은 다양한 춤작업을 통해 2004년 국가보훈처와 문화일보사가 공동 제정한 보훈문화상을 수상하였고 2008년 PAF로부터 "주목할만한 단체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창작춤 전문단체로서 굳건히 자리매김 하고 있다.



점점 더 성장하는 묵간, 그 열 번째를 맞아

묵간 10주년 '사색'

올해 2008년 8월 31일 오후 7시에 구 드라마센터였던 서울 동랑예술센터에서 고대하였던 묵간 10번째가 막을 올렸다. 이미 예전부터 묵간 10주년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해온 바 있었던 것이라 공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텅 빈 무대 위에 새겨진 '사색'이란 글자 속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웅장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준 청색의

기운 '틈'은 청색이 가지고 있는 만물을 생성하는 창조·생명·신생의 의미와 부합하는 이영림 안무의 작품으로 그 첫 막을 장식해주었고, 그에 이어 짧음을 상징하는 적색의 기운으로 서연수는 '녀자'의 꾸미지 않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분위기를 한껏 복돋우었다. 또한 세 번째로 안지형의 '흑·내가 숨쉬는 공기'에서는 흑이 기는 만물의 흐름과 변화의 의미를 우리 내 삶 속에서 거역할 수 없는 깊고 치열한 숨으로 역

동성있게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백이다. 백은 삼서로운 징조로 신성한 색을 의미한다. 이에 최자인 안무 '구해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존재로부터 그것에 의지하고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상한다.

이렇게 각기 다른 개성의 이영림, 서연수, 안지형, 최자인 안무자들이 묵간 10주년 이라는 어렵고도 소중한 의미를 꽉 채워주었다.

점점 더 성장하는 묵간, 내년에도 우수한 작품으로 다가올 것이다 기대된다.

-한혜림(06)기자-

평론 4인4색의 발현

대개의 동인체 춤단체들이 승이 세운 강한 기조나 심미적 도그마들에 예속되어 있는것에 비해, 퀸은 속박되지 않은 자유로움을 많이 누리고 있는 편이다. 즉 큐무용단은 꽉 짜인 형식보다는 느슨한 즉흥성을 선호하면서, 공연을 통해 각각이 그들의 춤에서 그들 자신의 발언을 꾀하게끔 한다. "사색(思色)"이란 부제가 붙은 이 춤기획전(동랑예술센터, 8월 31일)은 그래서 그들 각각이 춤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고 춤추는지를 보여줬다.

출처: 공연과 리뷰- 김태원 춤평론가-



Hot interview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김운미 교수
공연이 마친

후 KUM무용단의 예술감독인 김운미 교수님과 인터뷰의 시간을 기겼다.

Q. 공연을 끝낸 소감이 어떤가요?

A. 이번 공연을 통해서 우선 내적으로 우리 무용단은 15년간을 오면서 선·후 배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서로가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 스스로도 그렇지만 여러 외부의 좋은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점차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자들이 잘 가르쳤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공연이었습니다.

Q. 오랜만에 무대에 오르셨는데 특별히 살풀이를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 모든 사람은 항상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채우고 싶어합니다. 나도 물론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살풀이춤을 통해서 스스로를 비워내는 법을 터득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살풀이를 통해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살풀이춤 17분 동안 궂거리에서 자진 모리, 그리고 다시 궂거리로 돌아가 맷게 되는데 이 속에는 맷힘, 풀어짐, 신

명, 평온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 이 작품은 2부에 이어지는 누구라도 그려하듯이의 작품과 같은 맥락인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2부작품의 축약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살풀이를 2부 작품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펼어서 해석해 보여주는 거죠.

예술은 무척이나 감성적인 것이지만 나는 작품을 짤 때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작품을 짜요. 장면 하나 하나가 그냥 무심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것이라는 거죠.

Q. 지금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품의 내용이 다시 정리되는 듯 한데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관객들이 과연 교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A. 안무가의 의도와 관객의 해석이 꼭 맞아떨어질 필요는 없어요. 관객들이 작품을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춤 자체를 그냥 즐겨되고 아니면 관객们나를 대로 새롭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어렵다고 여겨져 왔던 순수예술무용을 즐기고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Q. 이번에 새로운 작품을 하지 않고 기존의 작품을 다시 공연하신 이유는요?

A. 저는 이번 작품이 93년도 작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살풀이를 통해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공연한 작품들을 생각해 보면 93년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부터

'온달', '합 시리즈' 등 모든 작품들이 그 당시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용사적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하나로 모아 새롭게 작품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공연연습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춤을 추면서 무용수들은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무용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창의성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안무자는 작품 의도를 잘 드러나게 하면서도 무용수 개개인의 특성을 잘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용수는 안무가가 원하는 색깔과 더불어 자신의 개성이 드러나 작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15년간 강은구 선생님, 황연희 선생님, 황두진 선생님과 함께 항상 작업을 하고 계신데 혹시 새로운 분들과 작업을 하고 싶으신 마음은 없으신가요?

A. 작품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과 만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새로움이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용단에서 어떤 작품을 올릴 때 서로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원활하고 나만의 색깔을 작품에서 보여줄 수 있죠. 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안무에만 집중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Q. 항상 여성, 근현대사를 주제로 한

작품을 하고 계신데 다른 요소로 작품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A. 역사는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되는 학문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찾는 작업이 무척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요. 지금까지 지나온 역사도 있지만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흐르는 것 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사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할 생각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찾아가는 과정은 계속 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A. 이번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간고 닦았던 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무대였습니다.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이를 무대에서 표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무대에서 뿐만 아니라 기획, 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해 줘서 자랑스럽고 이러한 특성과 능력을 살려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자신만의 개성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공연을 다시 한 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고려하여 안무를 하신 김운미 교수님의 안무에 무척 놀랐다. 이러한 의외성과 대중성이 함께 작품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KUM무용단의 작품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15주년 공연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KUM무용단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한지원(05)기자

강은구(음악가)

mini interview

황연희(무대의상)



Q. 올해 15주년을 맞이한 김운미 무용단은 어떤 무용단이라고 생각하세요?

A. 우선 교수님이 교육자적 생각을 바탕에 깔고 계속 공부

하고 연구하기에 제자들도 교수님을 따라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김운미 무용단은 늘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느껴져요. 교수님의 가르침 아래 제자들이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분위기가 틀리거든요. 대학무용단들이 추구하는 것이 예술과 교육이 있다면 김운미 무용단은 교육 쪽에 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Q. 특별히 김운미무용단음악에 표현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A. 무엇이든 한 방향만 추구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두 가지를 복합시켜 조화롭게 잘 섞었을 때

정말 좋은 음악이 나온다고 생각되네요.

Q. 김운미무용단의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이 멋진 작품과 함께 무대에 올렸을 때의 소감이 어떤가요?

A. 요즘은 무대에 작품을 올리고 다니 보면 작품의 의미와 느낌이 생각나요. 특히 연습하던 시간이 생각나는데, 그 순간 무용단과 교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서로를 믿어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Q. 마지막으로 김운미 무용단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A. 김운미 교수님이 김운미무용단을 통해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고 봐요. 교수님이 제자들을 잘 이끌어 가고 제자들도 잘 따르는 모습에서 볼 수 있죠. 전 김운미무용단을 만나고 난 뒤부터 춤이 좋아졌어요.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이런걸 보면 춤추는 사람도 음악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함께 있으니 춤을 잘 추고 싶으면 음악을 사랑하고 말해주고 싶네요.

Q. 올해 15주년을 맞이한 김운미 무용단은 어떤 무용단이라고 생각하세요?

A. 다른 단체들과 차별화 된 몸짓과 에너지가 매력적인 단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뛰고 구르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론 시원하기도 해요.

Q. 무대의상은 만들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대학 때 연극작품에서 의상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꿈을 키우게 되었어요. 유학 후 93년에 귀국해서 춤그룹 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그 사이 공연 작품으로 연극, 뮤지컬, 무용 등을 해서 300여 작품 정도 되는 것 같네요.

Q. 그동안 김운미 무용단의 무대의상은 밀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상은 무엇인가요?

A. 전 언제나 현재에 최선을 다해요. 작품을 올리고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곧 머리에서 지워 버리죠. 하지만 나의 작품은 나만의 색깔과 정서로 가슴에 기억되길 바랍니다.

Q. 선생님의 의상이 무대에 올라가 빛을 발했을 때의 소감은 어떠세요?

A. 전 제 작품도 반복해서 보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 무대에 올리고 완성도를 만들기 위해 볼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편안한 마음으로 작품을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습관이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어찌됐던 고생 끝에 막이 올라가고 관객들이 좋아할 때 보람을 느끼죠.

Q. 김운미 무용단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A. 지금까지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오고 있듯이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이 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평생 기억에 남을 명작이 탄생될 그 날을 위해 작업에 전념하고 미쳤으면 좋겠어요.

-나희영(08)기자

초창기칼럼

강수진만 바라보고 살건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발레리나 강수진을 위시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무용수들의 공연 소식에 무용계가 달아오르고 있다. 무용예술계의 경사스런 행사가 아닐 수 없다. 때마침 신정아 전 교수 추문으로 얼룩진 우리 예술계를 펼쳐내려는 듯 이 자랑스런 한국 무용수에 대한 언론의 조명이 눈부시다.

강수진에 대한 치사는 조금도 아깝지 않다. 독일 슈튜트가르트 밸레단 50년 역사에서 단 네 명에게만 주어진 '김미 탄처린'이라는 무용수로서 최상의 영예를 3월에 수여받고 금의환향했기 때문이다. 빼어난 춤, 수려한 외모에 감성 어린 연기력, 그리고 20년 동안 늘 진보하는 기량으로 무대에 선 성실성까지 인정된 것이다. 우리는 그녀의 환상적인 춤의 디딤돌이 된, 미치고 끝까지 같은 그녀의 감동적인 발을 기억한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우리나라 국민이 무용예술과 만나는 것은 강수진과 같은 스타가 한번씩 떨 때 뿐이다. 연례행사와 같은 이틀 해외파 무용가들의 공연 일정이 미루리되면 언론도, 국민도 일상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다시 무용과 멀어진다. 또 다른 세계적 명장 반열에

오른, 같은 팽줄의 예술가가 귀국할 때 까지 예술과 멀어진다. 고 백남준 때 그리고, 정명훈이 그러하다. 그들과 국적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열광한다. 심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 예술은 거기가 시작이고 끝이다.

더 불행한 현실은 이 해외스타에 대한 화려한 언론 조명 때문에 한국무용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선 듯한 착각 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온 국민이 밤에 팬이 된 듯 하지만, 밤에는 한번이라도 본 국민이 몇이나 될까? 자신인 화가의 전시회 개막 때 무용 소품 공연이 있었다. 그 개막식의 '수준있는' 참석자들은 '처음 본' 무용이 멎자고 난리였다. 하나 더, 필자가 아는 한국무용계의 차세대 주자로 뛰고 있는, 춤 잘추는 30대 남성무용수조차 자신을 무용수로 소개할 때 낫뜨겁고, 경우에 따라 굴욕스럽기까지 하다고 실토했다. 감을 수 없는 한국 무용예술계의 자화상이다.

다시 눈을 한번 돌려보자. 강수진이 활동하는 슈튜트가르트 밸레단은 초기에 존 크링코(John Cranko)라는 거장의 활약에 힘입어 오늘처럼 발전하였고,

그래서 슈튜트가르트는 손꼽히는 무용 도시의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밸레단이 소속된 슈튜트가르트 오페라극장처럼 밤마다 혹은 무용단을 산하에 둔 공연장이 있는 독일 도시는 36개에 이른다. 또한 독일인들은 그들 도시의 무용단에 소속된 세계적인 무용가들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끊임없이 펼쳐내는 예술적 레퍼토리를 즐기면서 절높은 삶을 만끽한다. 말하자면 우리의 자부심인 세계적인 무용수 강수진은 독일인의 문화생활의 일부이며, 무용예술의 감동으로서 그들 곁에 서있다.

언감생심 문화예술이 생활의 연장인 그들과 맞대놓고 비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언제까지 '한국을 빛낸 해외스타'에 대한 가슴물들한 자부심만으로 살아야 하나?

고사 직전의 고목에 주사약을 끊어 연명시키듯 하는 문화예술진흥은 예나 지금이나 큰 진전이 없어 보인다. 거기서 무슨 국제경쟁력이 생기겠는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준 문화예술진흥의 선봉에 선 국가기관은 이

념을 달리한 집단간의 기득권 다툼으로 분란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문예진흥기금에 혈인이 된 현실에서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가 어디쯤 있는지는 관심의 대상도 아니다. 전국에 문예회관이 100개에 이르는 문화인프리를 가졌지만, 관리와 운영에 급급하니 정녕 국민의 문화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문화국가니, 문화의 세기니 하는 거창한 구호가 난무하니 정작 우리 주변에 진정한 의미의 문화와 예술은 없다. 국가적 관심과 뒷받침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하지만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문화생활은 해외스타 귀국에 벌써부터 감동하는 그 수준에서 한치 앞으로 나갈 수 없다.

- 이 장 섭(문화평론가)

* 이 칼럼은 2007. 7. 27에 세계일보에 게재되었고 세계일보와 필자의 동의를 얻어 여기에 옮겨 싣습니다.



사랑하면 춤을 춰라!!

대졸자의 취업 문제는 여전히 사회의 커다란 이슈다. 이에 무용학과 졸업생들의 진로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대다수의 무용학과 졸업생들은 여전히 자신이 전공한 파트의 무용단에 들어가길 희망한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 매년 전국의 대학 무용학과에서 대략 2000여명의 전공자들이 배출되지만, 하늘의 직업무용단이 매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수십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난점에서도 현재 무용계에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움직임에 대응하여 무용 역시 다른 장르와의 다채체적 융화로 춤을 돋보이게 하고 영상과 퍼포먼스 그리고 음악적인 예술성까지 기하고 있는 신선향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춤이 90%로 주를 이루는 뮤지컬인 '댄스컬'이라고 하는 장르이다.

이는 춤이 가지고 있는 난해성을 여러 가지 장르와의 융화로 풀어내어 관객들과 무용수들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댄스컬의 '사랑하면 춤을 춰라'이다. 이것은 힙합, 팝핀, 현대무용 등 여러 가지 춤이 조화되고 영상과 음악등 대중성이 다가가기 쉬운 소재를 사용하여 함께 공연할 수 있는 작품으로 현재 대중성을 인정받고 있는 또 하나의 멀티무용공연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댄스컬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듣

기위해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주인공인 이재철(한양대학교 무용학과 현대무용전공)군을 만나보았다.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에 대해서 간신히 설명해주세요.

-댄스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는 4년 동안 지속되어온 역사가 깊은 공연입니다. 전용극장도 있고요. 또한 관객들이



거의 대부분 일반인이기 때문에 대중화에 큰 영향을 미친 공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댄스컬 이란 무엇인가요?

-뮤지컬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뮤지컬은 춤과 음악과 노래가 비슷한 비율로 섞여있는데 비해 댄스컬은 90% 이상이 춤으로 공연됩니다.

▲댄스컬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릴 때부터 춤을 좋아했고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춤의 재능을 발전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28살에

한양대에 편입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랑하면 춤을 춰라'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노력 끝에 주인공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고 있는 춤의 장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hip hop, 크럼프(krump), 팝핀, 현대무용 등입니다. 저는 구지 춤의 장르의 구분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힙합이나 순수무용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의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장르의 춤을 병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각각 개성이 다른 여러 춤을 추기 때문에 그만큼 표현력에 있어서 남들이 표현해내지 못하는 것까지 풍부하게 표현해 낼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이런 개성강한 춤들의 융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색깔을 확실하게 표현해내지 못하는 점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노력하고 합니다.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don't hesitate! 하고 싶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행동하세요! 주위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에게 솔직한다면 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댄스컬 주인공인 이재철군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제는 무용학과 졸업생들도 좀 더 다양한 시야를 통해 춤을 바라보고 스스로 틀을 깨어내는 도전이 필요 한 시대가 온 것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도전하라 젊은 무용인들이여!

-안선영(07기자)

美人을 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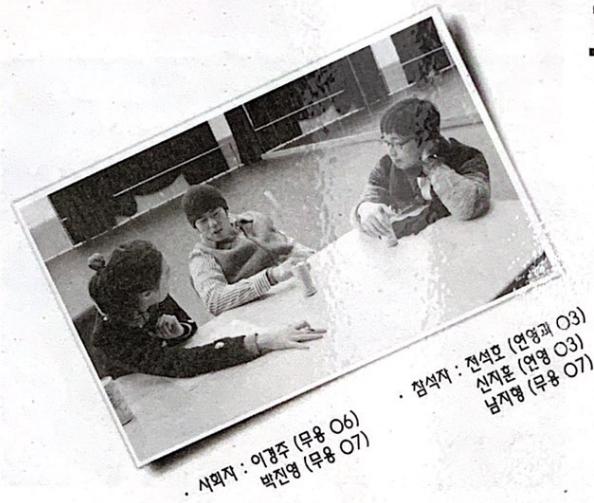
미인의 사전적 의미는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 재덕이 뛰어난 사람"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 시대의 진정한 미인상은 어떠한 것일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여자"라는 것을 유독 강조하거나 정신적인 아름다움 보다는 외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려했던 시대 또한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경계선에서 지나, 미래를 바라보는 진정한 미인은 휴머니스트적인 인간이 아닐까? 즉 "여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독립된 인간으로써 대접받으며, 평등한 사회에서 저마다 인간적인 향기를 내어 아름답고 바람직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미인이라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논하듯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S라인이며 학력이나 경제적인 능력까지 모두 갖춘 여자를 치장하는 미인의 기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 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회, 독재적이고 기계적이며 인간의 감성이 죽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걸포장만 아름다운 여성이 아닌, 내적인 따뜻한 감성과 부드러운 섬세함, 그리고 강한 모성애를 지닌 휴머니스트적인 여성이다가오는 미래의 진정한 미인상이 아닐까 한다.

-이경주(06기자)

그들이 사는 세상



Q 출업 후 무엇을 할 생각이며, 그 것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신지훈(이하신) : 출업 후 떄마다 “무엇을 하겠다.”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한양대학교에 들어온 이유는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서 입학을 하였지만, 지금은 영화감독을 해야겠다는 확고한 생각보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확실히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려 합니다.

전석호(이하전) : 출업한 후에도 연극을 할 생각입니다. 어느 연극단에 들어가기보다 제가 개인극단을 만들어서 연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극할 기회가 생길 때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출업까지 1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연극만을 고집할 것입니다.

남지현(이하남) : 저는 훌륭한 지도자이자 무용수가 되기 위해 더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학원에 들어가고자 학업과 실기 모두 열심히 힘쓰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용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기본적으

로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토익이라든지 토플 등 영어공부에도 힘쓸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교직이수를 위해 교직과목을 잘 듣고, 수행하며 공률 준비에도 힘써 후회 없는 대학교 4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학생 일 때 무언가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고 싶은 것도 많기에 의욕이 있을 때 하고 싶은 것은 다해보고 싶습니다.

Q 입학 때와 출업을 앞두고 지금까지 달리진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신 : 영화감독을 하고자 영화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고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 출업을 앞두고 제 2의 사회인이 되려하니 현실적인 문제 즉 먹고 살아야겠다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전 : 입학을 했을 때도 연극만을 하고 싶었고 지금도 역시 연극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경제적인 면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

예술은 배고픈 직업이라 말을 한다. 이 밑처럼 현 시대도 직장을 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전공하는 사람들의 취업률은 매우 낮다. 그래서 현 시대에 예술학부 학생으로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연극만을 고집해 오던 03학번 전석호 학우, 영화배우가 꿈엔 03학번 신지훈 학우와 교육과 무용수 두 미리 토끼를 다 잡을 당한 07학번 남지현 학우의 “그들이 사는 세상”을 2008년 12월 27일 토론의 장을 통해 들어 보았다.

- 이경주(06) 기자, 박진영(07) 기자-

렇다고 돈과 좋아서 하는 것은 따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이라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 : 입학할 때는 한양대만 들어오면 뭐든지 다 이룬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다니다보니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생기고, 대학에선 스스로 해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입학할 때는 논스톱 드라마처럼 자유분방한 캠퍼스 생활을 꿈꿨었는데, 막상 다니다보니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방학이 길다는 것 빼고는 오히려 과제도 많고, 시험도 똑같이 보고, 하나하나가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Q 후배들에게 어떠한 선배로 남고 싶은가요?

신 : 영화분야에서 만큼은 오랫동안 기억될 선배로 남고 싶습니다.

전 : 냄새날 정도로 연극만 하는 선배로 남고 싶습니다.

남 : 실력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존중 받고 본인 되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꾸준하게 비춰지는 선배가 되고 싶고요.

Q 출입기 전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신 : 다방면에서 뛰어나야 하지만 자기 진로에 대한 생각은 정확히으면 좋겠습니다.

전 : 연극 하는 사람으로서 무대에 있

을 때 만큼은 제대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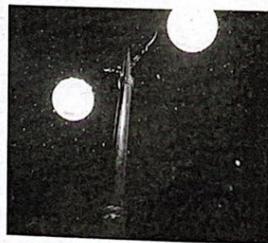
남 : 놀 때는 신나게 놀고, 자기 할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성실한 후배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Q 마지막으로 무용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왜 무용이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 혹시 숙명여대 가야금 연주단 아세요? 그 연주단이 처음부터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 번 시도하고 그 만큼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극이 배우를 창출 할 수 있는 이유는 실연극을 해서 뛰어난 배우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극이 돈을 벌수 없다 하지만 끊임없이 실연극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신 : 예술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위도를 두어서 한다면 예술이 아니며, 그렇기는 일반인들과 소통할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예술을 하는 사람들만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치면 독립영화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을 다시 종합해서 말하자면,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예술로 일반인들과 소통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일반인들을 길들인 다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이야기



희망을 품다

[Cherish a hope]

한한 세상일 때 미처 몰랐던 것이 어두워질 때 더 빛을 발하리라.

비록 희미한 빛일지라도 어둠 속 눈송이를 아름답게 비출 것이며 그 눈송이가 비록 작을지라도 겨우나 사람들의 축복으로 내릴 것이다.

하얀 눈에 세심한 배려

눈 내리는 길을 걷다 문득 느끼는 미안함.

아스팔트 위로 내려진 눈을 질퍽 질퍽 밟아 뭉개는 미안함이다.

바다에 깔려진 얼룩진 눈과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위태롭게 내린 하얀 눈을 번갈아 보며 내 어깨위로 쌓인 눈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스레 걸어본다.



-사진/글 박정아(08)기자-

이 추운겨울 어떻게 보내지?

어김없이 돌아온 추운 겨울! 이번 겨울 유행하는 아이템과 꼭 필요할 아이템들을 소개한다.

1. 목도리 겸 머플러는 최신 유행아이템. 목도리를 했을 경우 하지 않았을 때보다 체감 온도가 3도가량 높아진다고 하니 외출할 때는 필수. 또한 텔모자의 방울이 달려있는 것은 따뜻하면서도 벌랄한 느낌을 낼 수 있으며 후드 목도리는 모자와 목도리가 붙어있어 따로 따로 패딩벌거울이 없는 아이디어 상품. 2. 밤이 따뜻해야 몸도 따뜻해진다. 어그부츠와 가죽부츠는 옻겨울 더 빛을 버리는 아이템. 3.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아이템들. 장갑은 물론 충전식 손난로는 떠 오르는 아이템이다. 그리고 따뜻한 테이크아웃 커피나 어묵국물은 차가운 손을 녹여주는 보너스 아이템.

※〈보너스 아이템〉

1. 건조한 겨울 갈라지기 쉬운피부. 이런 날씨에 보습제나 핸드크림을 소지하고 다니는 센스 쉽게 갈라지는 입술에도 립글로즈나 립케어등은 필수다. 2. 위더, 팔워머나 발토시 같은 경우요즘 뜨거운 반응으로 대중화가 되고 있는 HOT! 아이템. 매서운 날씨 때문에 제대로 멋조차 부리기 힘든 요즘. 센스 있는 아이템으로 멋쟁이가 되어보자.



모델 박정아(08)

-정지선·박정아·나희영·류소리(08)기자-



김운미 교수님 동정

지난 2008년은 김운미 교수님께서 많은 성과를 거두신 한 해였다.

6월과 12월에 걸쳐 '우리춤 연구' 논문집 제 7집, 8집을 발간하신 것을 시작으로 8월 9일에는 대전에서 열린 <한 여름밤의 댄스페스티벌>에 참여 하셨고, 10월 7일에 열린 우리춤연구소 제2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예술적 담론으로 본 지역문화 한·일 지역문화 재조명·충청도·관>을 주최하셨으며, 11월 13일에는 KUM Dance Company 15주년 기념공연 <2008 누구 라도 그려하듯이>를 안무 하셨다.

-류소라(08) 기자-

승사

4년간 머물렀던 등지를 떠나며...

2005년 약간의 설레임과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한양대학교 무용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생으로 대학생활을 막기 해보기도 전에 시작된 많은 공연으로 지금의 흘러온 이전 체육대학에 있던 C홀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지금 대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기억 나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1학년 때 C홀에서 교수님과 선생님들, 선배들, 동기들과 함께 춤을 추었던 시간이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다.

이제 저는 4년간 정들었던 한양대를 떠납니다.

학교를 떠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언제나 한양대학교 한국무용파트의 일원이었음을 잊지 않고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학교 이름을 빛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희를 이끌어주신 교수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께 이 글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지원(05) 기자-

인사

훗날 더 보람될 날들이 되길 바라며!!

하루 종일 고된 연습에 매달리며 입시를 준비했던 날들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토록 꿈꿔왔던 2008년의 날들을 보낸 것이 정말 신기하고 행복합니다.

OT를 통해 만난 동기들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하기만 했지만 1년 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함께 공부도 하고 공연연습도 하며 힘들고 험겨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은 언제나 함께하는 동기들의 우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생활의 자유 속에서 배

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천국이라고만 생각했던 자유로운 시간은 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자신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공부도 무용도 배울 것이 많지만 꿈꿔왔던 행복한 한해를 보내게 되어 정말 뜻 깊었습니다. 훗날 이 시간들을 되돌이봤을 때 더 재미있고 보람된 날들이었기를 바랍니다.

-정지선(08) 기자 -

책의 뷔

올해의 추천 책 '달과 6펜스'

'꿈'과 '돈',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가? '달과 6펜스'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 틀 고갱을 모델로 예술을 위해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삶 세속적인 기반들을 들보지 않은 한 예술가의 일생을 그렸다. 제목에서 '달'은 광기와 예술의 극치, 다시 말해 열정과 꿈을 뜻하고, '6펜스'는 재산과 세속적인 명성을 갈망하는 감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떤 것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소설은 한 화가의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속 세계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이기도 하다.

-하혜림(06) 기자-



HKJ 편집후기



또한 교수님께서 교육자로써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춤 체험 프로그램>을 주최 하셨고, 12월에는 한국무용사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시고, 체육학회 논문집에 <한과 신명으로 본 한국 춤의 시원에 관한 연구 -제(祭), 축(祝), 유(遊), 무(巫)를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2008년에도 교수님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2008년 한해 성공적인 사업을 마무리 하고 밝고 훈한 2009년을 기원하며 더불어 진정한 지도자 교육자의 진진을 보여주시신 교수님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한다.

처음 시작할 때 혹시나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많은 걱정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의 기사 내용이 하나하나 완성이 되어갈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많이 행거주셔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HKJ 늘 파이팅!

-나희영(08)

-한지원(05)-

올해 HKJ는 특별하게 나에게 많은 결과물을 준 해였습니다. 직접 글도 써보고, 신문인쇄소에도 가보고, 회의 때 교수님, 선생님 그리고 선배님과 후배들 많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HKJ 신문작업에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HKJ의 큰 발전 지켜봐주세요!!

-이경주(06)-

신문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선배와 후배,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2008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이에 2009년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뜻 깊은 시간이 되었던 만큼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HKJ가 되길 바랍니다.

-하혜림(06)-

'신문작업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우며 2009년을 보람 있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하신 선생님, 선배님, 후배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HKJ가 많은 발전을 거듭하게 되길 바라며... HKJ 파이팅!!"

-박진영(07)-

제가 쓴 글들이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면서 느끼는 기대감과 설레임은 큰 행복이었습니다. 신문 작업을 하게 된 것은 저에게는 큰 행운이자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HKJ 가 더욱 발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신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신문을 위해 함께 노력한 선배님들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선영(07)-

많은 걱정과 부담을 가지고 시작한 신문편집은 학부 졸업 전 마지막으로 신문작업에 참여하여 이전보다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신문을 만들면서 2008년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4년간 저의 대학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후배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나희영(08)

-류소라(08)-

항상 봄오던 신문을 내 손으로 만든다는 것은 참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신문 몇장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할 줄은 몰랐고, 처음이라 어색하고 어리둥절했지만 선생님과 선배 언니들의 많은 도움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아(08)

처음 HKJ 신문 기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걱정도 되고 겁이 나기도 했는데 선생님과 선배님들의 관심으로 정말 재밌게 신문을 만든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HKJ 모두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선(08)-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HKJ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된 "HKJ 2009"에 가슴이 설레이고 뿌듯합니다. 1호에서 7호까지 발행된 발자취를 뒤이어 2009년 8호가 탄생하기까지의 여러 과정과 결과물을 HKJ를 바라보는 모두에게 큰 의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늘 꿈꾸며, 생각하고, 실천하며 무용계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나기 위해 언제나 깨어있는 HKJ가 되겠습니다.

신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신 교수님과 여러 선생님들, 끝까지 함께 수고해준 우리 HKJ 기자 모두에게 진심어린 고마움을 전합니다.

-편집인 인지형-